

익산시, 승마관광 메카도시 꿈꾼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육성
공모사업 선정...국비 15억 지원

익산시가 승마 레저를 통한 스포츠 관광 메카도시로 도약한다. 지역 말산업 활성화에 나선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한 '2021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은 스포츠 자원과 지역별 관광 자원을 융·복합해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승마관광의 메카도시, 익산이라는 주제로 승마레저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으로 매년 국비 5억원씩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상현실에서 승마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는 등 승마에 대한 두려움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힘쓸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북부권 관광 인프라와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승마를 통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내 최대 승마 스포츠관광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완공 예정인 공공승마장과 승마인들로부터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승마길을 이용해 전국승마대회, 유소년승마대회, 지구력대회 등을 지속적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욱 축산과장은 "앞으로 3년동안 익산의 우수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승마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소비·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5일
부터 7일까지 제1회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
대회를 개최된다. /익산=고은영 기자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전국대회 전 종목 빛내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금 4개, 은 2개 획득
정혜정-채세현-김소영, 국가대표 선발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조정팀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63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여대부 및 일반부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시청 조정팀은 유은경 감독의 지도로 김영래, 피선미, 채세현, 김채연팀으로 이뤄진 쿼드러플스컬에서 7분 2초 23을 기록하며 1위로 물살을 갈랐다.

또한 무타페어 김영래, 피선미 선수가 추천한 무타페어 2위, 정혜정, 채세현 선수의 더블스컬 1위, 싱글스컬 1위 정혜정, 2위 김소영, 경량급 싱글스컬 1위를 김소영 선수가 차지하며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한편, 이 대회에 앞서 진행된 '2021년 조정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여자 싱글스컬 부문 2위를 기록한 정혜정 선수와 3위를 기록한 채세현 선수가, 여자 경량급 싱글스컬 1위를 차지한 김소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군산=백용규 기자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전국체전 금1, 은3, 동1 메달 획득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총5개 메달(금1, 은3, 동1)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도 대표로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선수 4명, 코치 2명, 심판 1명이 탁구와 론볼 2종목에 참가했다.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탁구경기에서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이근우 선수는 여자개개인전 금메달과 여자복식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백영복 선수는 남자개개인전 은메달과 남자복식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전북도 대표팀 소속 심재선 선수는 안동시온재단에서 열린 론볼 B4복식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장수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장영수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전한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향



상 장애인체육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위상을 드높여 장수군 홍보와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모범이 되어줘 감사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고창군, 도민체육대회 '남자배구 1위-축구-바둑-씨름 3위' 쾌거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23일 제58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이 열고 있는 익산시공설운동장을 찾아 고창군선수단을 격려했다.

고창군선수단은 지난 23일부터 양일간 남자배구 1위, 축구, 바둑, 씨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어나고 있다.

이날 유 군수와 함께 최인규 군의장, 조규철, 조민규,

이봉희, 김미란 군의원과 성경찬, 김만기 도의원, 군 체육회 오교만 회장과 임원진이 함께했다. 오교만 체육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좋은 성적까지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종목도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안병철 기자

이재성 66분 활약...마인츠, 빌레펠트 꺾고 독일 포칼 16강

이재성(29, 마인츠)이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2라운드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전에서 선발로 출장해 66분간 활약했다.

마인츠는 27일(한국 시간) 독일 마인츠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시즌 DFB 포칼 2라운드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와 경기에서 연장 끝에 3대 2로 이겼다. 이재성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후반 21

분 레안드루 바헤이루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승리한 마인츠는 DFB 포칼 3라운드(16강)에 진출했다.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는 오스나브뤼크(3부리그)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 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정우영(22)은 후반 37분 교체로 출전해 경기 종료까지 활약했다. /노컷뉴스

미국에 완패한 여자축구 벨 감독 "원인은 명확...시간-체력 부족"

대한민국 여자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폴린 벨 감독이 미국전을 6점 차로 패한 뒤 시간과 체력 부족을 큰 실점 원인으로 뽑았다. 한국 대표팀은 27일(한국 시간) 오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린 미국과 친선 경기 2차전에서 0대 6으로 졌다.

FIFA 랭킹 1위 미국을 상대로 한국(랭킹 18위)은 지난 22일 1차전을 0대 0 무승부로 마쳤지만 2차전은 실력차를 실감했다.

벨 감독은 경기 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1차전의 경우 내용적으로 좋았다. 미국의 홈 연승을 끊었고, 미국이 계속 골을 넣고 있던 상황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것 또한 고무적이었다. 반면에 2차전은 다른 양상이었



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원인은 명확하다. 1차전에서 강도 높은 경기를 치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선수단 전체적으로 체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월드 클래스의 팀이고, 빠르게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 강한 팀을 상대하는 데 있어 체력적으로 부족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미국처럼 높은 수준의 팀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체력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원정 2연전 일정을 마무리한 벨호는 2022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을 위해 다음 달도 훈련을 이어간다. 벨 감독은 "가장 큰 부분은 체력적인 부분이다. 우리 선수들이 전술적 이해도나 기술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높은 수준의 상대와 경기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컷뉴스

새전북신문 문학상에 도전하세요!

새전북신문이 대한민국의 문학인들과 문학동호인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자 새전북신문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 전국의 기성 문인과 문학 애호가

시상 구분 대상1명, 작품상2명

시상 내용 대상-상패와 상금 200만원, 작품상-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응모 부문 2015년 8월 이후 발행한 수필집, 또는 대표작 3점 (수필집에 대표작 3점 명기)

응모 자격 자전 및 타전 (동일 작품집으로 이중수상 불가)

제출 서류 수필집1권 또는 수필3편(2백자 원고지 10~12매) 과 문학 관련 활동 사항 1매

제출 기간 2021년 11월 5일 (마감일까지 도착분)

접수처 (우)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인후동) 새전북신문빌딩 4층 (새전북문학상운영위원회)

수상자 발표 추후발표

후원 유육결조

기타

- ① 응모 작품집 또는 수필3편과 함께 문학관련 활동사항을 A4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 [생년월일, 등단연도, 등단지, 작품집명, 문단활동, 수상경력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 등기로 우송할 것]
- ② 접수된 서류 및 수필집은 반환하지 않음
- ③ 수상자 특집으로 새전북신문에 게재 예정

새전북신문 문학상 운영위원회

